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의 부도 및 휴·폐업원인 조사결과

2005. 11

- '05. 8 ~ 10월 사이에 기업은행 등 3개은행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부도 및 소상공인 휴·폐업 실태 조사결과를 정리한 내용임
- 조사대상 : 부도 중소기업 803개 업체, 휴·폐업소상공인 549명
- ⇒ 향후, 주기적인 부도원인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한 조사체계 정립방법을 금융감독원(신용감독국)과 협의중임
- *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창업벤처국·과장과 협의를 마쳤기에 결재를 재상신합니다.

중 소 기 업 청
정책평가과

I. 최근 부도현황

□ 부도발생 추이

- IMF이후 증가하던 부도기업 수는 '0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 '03년 이후 지속되는 내수부진, 환율하락,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대내외적 기업여건 악화로 매년 4~5천개의 부도기업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 '05.9월 부도기업수(247개)가 1990.4월이후 최소치 기록(자료 : 한국은행)

연도별 부도업체수 추이

구분	'00	'01	'02	'03	'04	'05.상반기
법인	3,840	3,220	2,710	3,214	2,747	1154
개인사업 자	2,853	2,057	1,534	2,094	1,698	629
계	6,693 (33)	5,277 (11)	4,244 (4)	5,308 (4)	4,445 (4)	1,783 (1)

* ()내는 대기업

□ 부도통계 현황

- 현재 부도통계는 부도기업 수, 지역·형태·업종별 현황 등의 양적 통계위주이며
- 부도원인, 부도이후 경영실태 등의 질적 원인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금변조사를 통해 질적 원인조사에 대한 지속성여부 검토

II.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부도기업(소상공인 포함)의 부도(휴·폐업)원인 조사를 통해 부도관련 통계의 확충 가능성 및 도산원인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 조사기간(2개월) : 2005. 8. 17 ~ 10. 13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기업은행 등 3개은행 거래 부도기업('04.1.1 ~ '05.6.30사이) 803개, 소상공인센터 방문 휴·폐업 소상공인 549명

○ 조사방법

- 부도기업 : 3개 은행(기업, 국민,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기업 보고서를 통한 간접조사
- 소상공인 :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사 면접조사

□ 조사내용

- 부도기업 일반현황(업종, 매출액, 부도금액 등), 부도요인별 성향, 부도원인, 부도이후 경영실태 등

Ⅲ. 부도기업 조사결과

1. 부도기업 일반현황(803개 업체)

□ 매출액별 현황

- 부도기업의 58.4%가 매출액 규모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인 것으로 조사
 - 매출액 규모별로는 10~50억원 미만 39.8%, 100억원 이상 21.9%, 50~100억원 미만 19.7%, 10억원 미만 18.6%

□ 종업원 규모별 현황

-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77.5%, 중기업 22.5%
 -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3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 기업도 14.3%를 차지하고 있음
- * 종업원규모가 파악된 503업체에 대한 분석 결과

□ 부도금액별 현황

- 부도기업의 50%가 부도금액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
 - 부도금액 1억원 미만 50%, 1~5억원 미만 39.9%, 5~10억원 미만 5.2%, 10억원 이상 4.9%
- * 부도금액이 파악된 388업체에 대한 분석결과

□ 업종별로는 제조업 56.4%, 건설업 15.6%, 서비스업 27.9%

□ 지역별로는 수도권 63.1%, 비수도권 36.9%

□ 업력별 현황

◦ 부도기업의 81.3%가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인 것으로 조사

- 업력 10년 이상 기업이 42.6%, 5~10년미만 38.7%, 3~5년미만 14.0%, 3년미만 4.7%

2. 부도요인

□ 부도기업의 80.3%가 기업외적요인에 의해 부도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판매부진, 판매대금 회수지연, 연쇄도산 등 기업외적요인에 의한 부도가 많이 발생

- 기업외적요인 80.3%, 기업내적요인 17.3%, 우발적 요인 2.4%

* 기업외적요인 : 과당경쟁, 출혈판매, 환율원자재가격 상승, 경기침체 등

* 기업내적요인 : 방만한 자금관리, 무리한 투자, 기술·생산력 열세 등

◦ 기업외적요인 중에서도 출혈, 과당경쟁 등 구조적요인(40.8%) 보다 경기변동요인(59.2%)에 의한 영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 '03년부터 지속된 내수부진, 소비감소, 환율하락 등의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 부도시점을 기준으로 '04~'05년 1/4분기까지는 경기변동에 의한 부도비율이 높은 반면
 - '05년 2분기에는 구조적요인과 경기변동요인의 의한 부도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금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내수와 소비 심리의 회복에 따른 것으로 보임
- * 부도시점('04~'05년 1/4분기) : 경기변동요인 61.9%, 구조적요인 38.9%
- 부도시점('05년 2/4분기) : 경기변동요인 50%, 구조적요인 50%
- * 소비자평가지수 : 65.1(04.10) → 66.5(05.1) → 90.2(05.4) → 81.2(05.9)

□ 부도의 주원인은 판매대금 회수지연(38.1%), 판매부진(31.5%)

- 부도의 주원인으로는 판매대금 회수지연, 판매부진, 연쇄도산(11.1%)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내수부진, 소비감소 등의 외적요인에 의한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임
 - 다만, 판매대금 회수지연 및 판매부진 등은 내수부진, 소비감소 등의 기업외적요인의 영향 외에도 기업내부적으로 시장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엄밀히 말한다면 기업 내·외적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투자실패, 적자누적, 재무관리실패 등의 기업내적요인에 의한 부도비율도 17.5%로 나타나,
 - 시장 환경변화에 맞는 사업전환, 신제품투자 등의 실패에 따른 부도도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분석

- 부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원인도 판매부진 28.4%, 판매대금 회수지연 24.2%, 재무관리실패 19.1% 등으로 조사
 - 부도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내수부진, 소비감소 등에 따른 판매부진 및 대금회수지연에 의한 자금경색에 기인

□ 부도의 형태는 적자부도 86.3%, 흑자부도 13.7%로 조사

- 흑자부도는 부도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당기 순이익 있는 기업을 흑자부도 기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통상적인 흑자부도기업과는 구별
 - 또한, 대부분이 외감기업이 아닌 관계로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음
 - * 흑자부도 :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기업

□ 부도이후의 상황은 대부분 폐업(94.9%) 상태

- 부도이후의 대부분의 기업이 폐업상태로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도기업의 재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부도기업이 부도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고 도피 등을 함에 따라 경제사범이란 사회적 낙인으로 재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창업교육시 부도발생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부도상담제도” 도입·운영함으로써 부도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3. 향후 정책과제

□ 부도원인 통계의 지속적 확보 추진

- 개별은행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도기업에 대한 실태를 종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분기별 부도원인 통계 생산 추진(금융감독원과 협의 진행중)
 - 필요시 우리청의 금융지원위원회 개최시 동 사안 논의
- * 부도원인조사는 부도기업인이 조사대상자인 관계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여 은행을 통해 간접조사

□ 부도발생에 대처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추진

- 창업교육 커리큘럼에 부도발생에 대비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
- 부도상담제도 마련
 -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이나, 사업전환 컨설팅시 “부도”시 대처방안 교육

□ 부도기업 재기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부도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불신해소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안 마련
 - 기존의 벤처패자부활프로그램, 소상공인 사업재기 전담프로그램 등 정부지원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부도기업인의 경영노하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지원 방안 강구

IV. 소상공인 휴·폐업 조사결과

1. 휴·폐업기업 일반현황

지역별로는 수도권 33.3%, 비수도권 66.7%

연령별현황

◦ 연령별로는 3~40대 80.7%를 차지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30대 43.7%, 40대 37.0%, 50대 10.9%, 20대 5.5%, 60대 2.9%

성별로는 남성 55.6%, 여성 44.4%

사업경험이 있는 비율이 62.1%, 없는 비율 37.9%

◦ 사업경험이 있음에도 휴·폐업중에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경기부진에 따른 여파 및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재창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휴·폐업기업의 대부분이 실제 폐업(95.8%) 상태

휴·폐업기업의 평균 투자규모는 1.08억원

◦ 투자규모는 0.5~1억원 미만 37.6%, 5천만원 미만 27.5%, 1~2억원 미만 24.6%, 2억원 이상 10.3%

휴·폐업기업 평균 매출액은 1.7억원

◦ 연간매출액은 0.5억원 미만 30.3%, 1억원미만 25.1%, 2억원 미만 25.1%, 2억원이상 19.5%

□ 창업에서 휴·폐업까지 평균 사업기간은 3.6년

- 사업기간은 1~2년미만 36.4%, 3년이상 22.4%, 1년미만 22.0%, 2~3년미만 19.2%

□ 휴·폐업기업의 평균부채는 3,633만원

- 부채규모 0.5억원 미만 78.5%, 0.5~1억원 미만 16.9%, 1억원 이상 4.6%

□ 업종별 현황

- 도소매업 33.5%, 서비스업(오락, 교육, 사업 등) 27.6%, 음식 숙박업 23.9%, 제조업 11.7%, 부동산 및 임대업 1.8%, 기타 1.5%

2. 휴·폐업 원인

□ 휴·폐업의 사업내적 원인으로는 경영전략 부족, 창업준비 부족, 자금운영 실패인 것으로 조사

(단위 : %)

	경영전략 부족 (자금운용 외)	창업준비 부족	자금운용실패	우발적원인	기타
주원인	30.3	22.1	13.5	12.1	22.0
부원인	27.1	17.2	24.7	14.3	16.7
합계	57.4	39.3	38.2	26.4	38.7

- 경영전략 부족의 세부원인으로는 영업력부족 35.8%, 마케팅 능력부족 31.8%, 고객관리실패 13.4%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사전교육 필요

- 창업준비 부족의 세부원인으로는 업종정보 부족 40.1%, 입지 부적합 34.9%로 나타나 창업전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창업을 한 것으로 분석
 - 자금운용 실패 원인으로는 추가자금조달 압박 47.3%, 초기 차입 자금 과다 18.7%, 무리한 사업확장 16.3%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우발적요인으로는 기타(세금문제, 불경기, 수요급감 등)32.9%, 가정환경변화 30.9%, 법적분쟁 16.8% 등으로 조사
- 휴·폐업의 기업외적 원인으로는 공급과잉, 가격경쟁력 하락, 수요감소 등인 것으로 조사

(단위 : %)

	공급 과잉	가격경쟁력 하락	업종노쇠화 수요감소	제품경쟁력 하락	거래처 등의 부진	인력 부족	제도변화 규제강화	기타
주원인	30.4	21.2	12.6	12.5	6.8	1.4	1.6	13.6
부원인	19.0	21.8	18.3	9.2	14.6	4.6	2.8	9.6
합계	49.4	43.0	30.9	21.7	21.4	6.0	4.4	23.2

- 공급과잉상태의 주원인이 상권내 동종업 급증(64.1%)인 것으로 나타나, 창업자의 적성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창업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쫓는 창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권내 동종업 급증 64.1%, 대형점의 시장장악 16.3%, 유사 업종·상품출연 14.7%, 수입제품 증가 2.8%, 기타 2% 순
- 가격경쟁력 하락의 주요원인은 가격출혈경쟁 51.2%, 원가부담 가중 19.2% 등으로 나타나, 경쟁업체간의 제살각아 먹기식 경쟁 및 홍보강화에 따른 부작용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

- 업종노쇠화·수요감소의 주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수요감소, 차별화 등 노력부재로 나타나, 시장변화에 따른 업종전환 및 독창적인 아이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 지속적 수요감소 45.6%, 업종혁신부재 27.5%, 새로운 유통 형태등장 16.8%, 대체업종 등장 6.7%, 기타 3.4% 순
- 제품경쟁력 하락의 세부원인으로는 유사상품 출시 31.8%, 품질경쟁력 약화 25.2%, 서비스경쟁력 약화 25.2%, 수입덤핑 제품 유입 12.1%, 기타 5.6% 등으로 조사
- 거래처 등의 부진유형으로는 주문 감소, 거래처도산, 미수금 증가가 주원인으로 나타나,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도 큰 것으로 조사
 - 주문감소 52.0%, 거래처 도산 18.4%, 미수금 증가 16.3%, 원재료파동 5.1%, 기타 8.2% 순

3. 휴·폐업 지원대책

- 소상공인들은 휴·폐업 방지대책으로 경기활성화(49.8%), 컨설팅 지원(21.0%), 자금지원(17.5%)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요망
 - 가장 필요한 컨설팅 분야로는 마케팅, 입지분석, 사업성 평가, 아이템 선정 대한 지원이라고 응답
 - 경기활성화 49.8%, 컨설팅지원 21.0%, 자금지원 17.5%, 보육 기능강화 2.9%, 세금감면 2.5%, 공제제도 도입 2.3%, 협회구성 1.3%, 기타 2.7% 순

- 휴·폐업 업체 회생과 관련하여 자금지원, 금리인하, 업종전환, 판로지원 등을 바라고 있음
 - 자금지원 30.2%, 금리인하 29.5%, 업종전환 20.5%, 판로지원 12.9%, 신용구매보증 1.9%, 종업원지원 0.8%, 기타 4.2% 순
- 업체 스스로의 휴·폐업 방지방안으로는 서비스개선(37.0%), 사업전환(23.8%), 유통·판로개편(20.2%), 단가조정(11.8%) 순으로 응답
- 사업재기 장애요인으로 자금조달(65.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정리(13.9%), 가정·건강문제(9.1%), 채권자 등의 이해부족(3.9%) 등의 순으로 응답
- 애로 및 건의사항
 -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부담완화
 -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 규제완화
 - 금리인하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 보증금액 확대 및 보증료 선불제도 개선
 - 신용보증제도 확대
 - 컨설팅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지원기관 기능 활성화
 - 창업교육 확대
 - 폐업으로 인한 정책자금 상환유예

4. 향후 정책과제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마련, 교육기회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 창업시 입지분석, 업종선택, 아이템선정, 사업성 평가 등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역할 강화

* 쿠폰제 경영컨설팅 중 상시경영자문서비스를 소상공인에게도 개방 운영중

□ 소상공인 사업재기(Restart) 전담프로그램 조기 실시

- 영세자영업 대책 후속조치로 소상공인상담사로 TF을 구성하여 운영방안(표준매뉴얼 개발 등) 수립중